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조 은 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실무영역의 중요 인자인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여 아동간호사의 실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1개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해당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9일부터 2012년 4월 18일까지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9.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와 one-way ANOVA, Scheffe 사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48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64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평균 3.87점 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r=.359$, $p<.001$), 간호전문직관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487$, $p<.001$), 자기효능감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442$,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기혼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나이가 많고,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았고 나이, 총임상경력, 아동간호사로서의 경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종교가 있는 경우,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경우 점수가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이 높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각각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간호사와 부모의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인식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아동간호사,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학 번 : 2004-20665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용어정의	4
II. 문헌고찰	5
1. 간호전문직관	5
2.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8
3. 아동간호사와 환자부모의 파트너십	9
III. 연구방법	11
1. 연구 설계	11
2. 연구 대상	12
3. 연구 도구	13
4. 자료 수집 방법	14
5. 윤리적 고려	15
6. 자료 분석 방법	15
IV. 연구결과	16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2.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18
3.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	19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비교 ...	20

V. 논의	23
VI. 결론 및 제언	30
1. 결론	30
2. 제언	31
참고문헌	33
부 록	40
ABSTRACT	47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diatric Nurses	1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19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19
<Table 4>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21
<Table 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and Age, Length of Nursing practice, Length of Nursing practice in Pediatrics	22

List of Figures

<Figure 1> Strasen's Self-Image Model for Nursing Profession	11
<Figure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12

부록 목차

부록1: 연구참여 동의서	40
부록2: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	41
부록3: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	42
부록4: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44
부록5: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측정 도구	4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간호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의 질병뿐만 아니라 각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대상자가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되는 상황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맥천자와 같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침습적인 처치에도 아동과 부모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동간호사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경험하며(Lloyd 등, 2008), 많은 아동간호사들은 아동이 예기치 못한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 충분히 돌보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Clements & Bradley, 2005).

아동간호사의 이러한 상황적 특성들로 인해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일반 성인 병동이나 중환자실, 인공신실과 같은 기타 특수 파트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미, 2011). 입원한 환자 어머니의 경우 간호사정, 직접간호, 상담 및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간호 요구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김옥, 200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호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간호사는 아동병동 근무를 잘 선택하지 않으려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례로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근무지별 간호사 사직현황을 살펴봤을 때 평균(2009년 6.7%, 2010년 6.6%)에 비해 소아간호과의 사직률이 높았으며(2009년 8.7%, 2010년 7.9%), 내과, 외과, 특수, 수술간호과를 비롯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사직률을 나타냈다(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2010;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2011). 이러한 현실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아동간호 실

무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와 그 업무 특성에 대한 고찰과 양질의 아동간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실무 발전을 위한 중재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 있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해당되므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기본이 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한 경우 간호업무수행도가 우수하며 간호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하다(김미란, 2008).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직무수행갈등이나 업무수행, 이직의도 등과 같은 간호실무의 상황적 특성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김명희, 2008)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요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로서 행동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므로(윤은자 등, 2005)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도 직결된다고 본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므로(Bandura, 1997) 이 또한 아동간호사의 상황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무과학으로서 간호학이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실무에 근거한 지식개발은 필수적이다(Kim, 2002). 그러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아동간호학 분야의 연구개념들 중 간호사 및 간호실무현상영역의 연구는 34%에 그치며 이 중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한 대상자현상영역의 연구개념들을 간호실무현상영역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실무현상영역의 연구는 14.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경자 등, 2002). 더욱이 간호실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는 현재 국내 뿐 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입원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있어 환아 부모와의 관계 정립,

즉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은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아 옆에서 간호를 담당하게 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아동간호사에게 중요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양질의 서비스에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과연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가 부모와의 적절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자신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후 아동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적절한 간호사-부모 관계의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이러한 인식이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과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정도를 파악한다.
- 2)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 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이다(윤은자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나타낸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실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Oh(1993)가 번역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척도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자기효능감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이란 입원기간동안 전문가인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사회적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최미영, 2012). 본 연구에서는 최미영(2012)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간호전문직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과 격식을 갖추고 실제적인 공헌을 하는 직업을 말한다(전산초 등, 1989). 한국의 간호는 19세기 후반 선교간호사에 의해 근대간호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 지난 수 십년 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문직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권영미 등, 2007).

간호전문직관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간호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상, 영상, 물리적 유사성, 사진, 가시화된 사람·동물·사물에 대한 표현이나 상징 혹은 하나의 개념으로,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Mendez & Louis, 1991).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는 이미지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동의 없이는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김은영, 1998), 일단 특정 조직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구축되면 그것은 그 조직만의 독특한 고유 자산이 되어 다른 경쟁조직이 쉽게 빼앗아 갈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어 강력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희준, 1990).

현대의 간호직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독자적인 기능 수행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 간호의 실체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행해지는 간호 실체를 근거로 해서 간호라는 개념이 기술되어 결과적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간호라는 개념은 간호의 실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산초, 1986). 이러한 간호실무는 대상자, 의료소비자와의 만남이 있는 간호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실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간호이미지는 간호의 개념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묘윤, 2001).

간호이미지란 사람들이 갖는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인상으로 보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갖는 정신적 개념, 그리고 직무에 대한 기본 오리엔테이션과 태도의 상징이며(임귀숙, 1999), 간호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문적 자기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윤은자, 1995). 전문 직업관이 올바르게 확립되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 진료 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임대순, 2005) 그렇지 못하면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강현숙 등, 2002).

Kalish와 Kalish(1983)는 대중매체에 비추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간호사의 자존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호사의 신념, 가치, 자신감을 손상시키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간호사들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업무보다 단순한 업무에 치중되고, 부정적으로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간호사 스스로 자신의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정립과 전문직 관 형성에 힘써야 한다. 김문영(1999)은 간호사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는 보통 정도였으며 전통적, 전문적, 직업적,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긍정도가 높았고 전문적 이미지 중 “나는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항목이 평균 이상의 긍정도를 보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김형자(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 의료기사, 사무행정직보다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묘윤(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법조인에 비해 간호사 스스로가 가장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인 지위나 보수에서 상대적 이미지는 낮게 인식하고 갈등하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김선영(200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비교적 긍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김문영(1999)의 연구와 비교하여 전문적, 전통적, 개인적,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높은 긍정도를 보여 점차 전문적 이미지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윤은자 등(2005)은 간호이미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화 요인, 사고와 신념, 전문직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을 간호전문직관이라 명명하고 도구를 개발하였다. 정리하면,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로 간호사 개인의 발전과 간호실무 활동의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보는 간호에 대한 인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며(윤은자, 1995),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간호업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호사의 갈등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간호 대상자에게 보다 향상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므로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Strasen(1992)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이미지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슈가 되어 왔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 논의되고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간호 이미지가 향상되지 못한 것은 이전의 제안들이 미디어에서의 간호이미지 향상,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의사와의 관계 개선 등 외부적 변화에 의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Strasen(1992)은 초점을 간호사 자신에게 돌려 Self-Image Model for Nursing Profession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자아이미지는 생각과 믿음의 요소들로 구체화 되며 생각과 믿음은 자아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자아이미지는 수행을 결정짓는 행위에 영향을 끼치며,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경험, 환경, 전통, 사회화, 관련 집단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이미지의 확장된 개념인 간호전문직관의 결정에도 경험과 환경, 관련 집단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수행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요인에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문영숙 등, 2011), 직무만족(고순희 등, 2004; 김명희, 2008), 업무수행(김명희, 2008; 김미란, 2008), 이직의도(김명희, 2008), 재직의도(김미란, 2008), 간호사 이미지(이시라, 2011; 함연숙, 2011), 조직몰입(김명희, 2008; 임향숙, 1999), 죽음에 대한 태도(임대순, 2005), 연령 및 경력(김미란, 2008; 최송희, 1997; 추현심, 2001) 등이다.

Bandura(1977)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것은 또한 직접적으로 건강행위를 동기화시키고 행동의 시행이나 유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서길희, 1999).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기효능감은 지적 수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여 그 수준을 낮추고, 여러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Holahan 등, 198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와 도전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탄력성과 감정 조절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장휘숙, 2005).

임상간호사는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 전문직으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증진되고, 지각된 안녕 상태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Greenglass 등, 2003), 자기효능감이 높은 임상간호사는 긍정적 자아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금선 등, 2004).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영숙 등(201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조직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란 ‘둘이 짝이 되어 협력하는 관계’로 (<http://krdic.naver.com/>)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너십은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가 병원에 입원한 환아 간호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세우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 수행과정의 협력적 관계이며(최미영, 2012)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관계는 아동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이다(Espezel & Canam, 2003).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입원이라는 위협적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환아와 부모의 불안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07).

아동은 다양한 연령에 따라 성장, 발달 요구와 대처능력이 다르며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Strickland, 2005). 이런 경우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대부분 부모가 하게 되며 특히 입원 상황에서 부모는 돌봄 제공자로서 환아의 간호에도 많은 부분 참여하게 된다(Maijala et al., 2009). 아동병동에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가족구성원은 입원한 환아를 간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아동간호실무에서 환아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모는 수동적인 수혜자나 대리인이 아닌 환아의 선호와 기대를 표현하는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최미영 등, 2010).

Wade (1995)는 파트너십에 관계, 상호호혜성, 공유, 동등성, 친밀성, 참여 등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Courtney 등(1996)은 파트너십을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목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참여하는데 대해 동의한 건강전문가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파트너 간의 협상되고 공유된 힘으로 보았다. 아동간호실무에 적용해보면 전문적인 간호사가 갖고 있는 보건 의료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환아 부모가 갖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관심, 목적을 공유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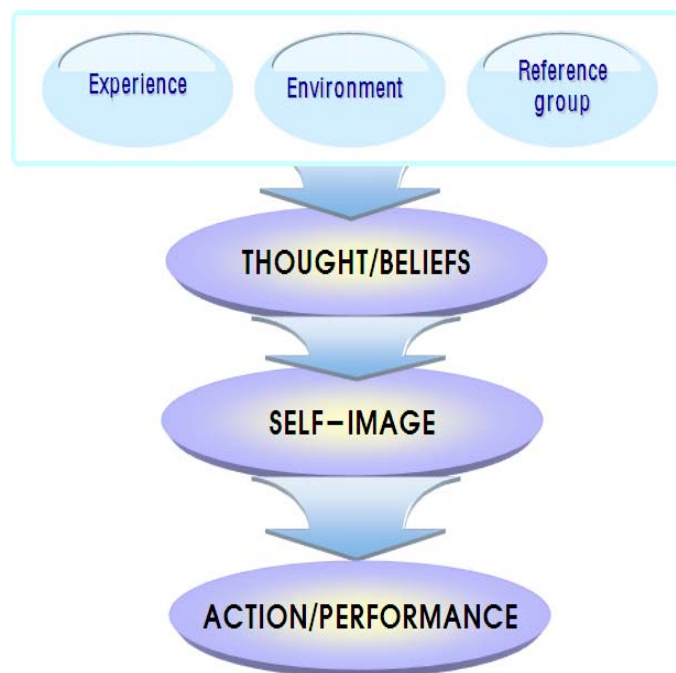
아동간호사와 환자부모의 파트너십이 좋을수록 환아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이 높아질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아동을 간호할 때 환자의 부모까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이라는 보고도 있으므로(Callery, 1997) 아동간호사와 환자부모의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내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그림 1>의 Strasen's Self-Image Model for Nursing Profession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그림 2>와 같다. 간호사의 경력, 병동특성, 일반적 특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은 아동간호사에게 기대되는 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1> Strasen's Self-Image Model for Nursing Profession



<Figure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1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해당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선행연구와 Cohen(1988)의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에서 상관관계의 표본 크기 결정을 위해 제시한 표에 의해 결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측검정일 시 유의수준 0.05, 효과의 크기는 상관관계에서의 중간크기인 0.3, 검정력 0.90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2명이었으며, 분석에 사용한 최종 대상자는 165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나이,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종교,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현 근무지경력, 아동간호사 근무경력, 근무병동 등을 조사하였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의 5개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점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주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92$ 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Oh(1993)가 번역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평점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를 1점, '확실히 그렇다'를 5점으로 주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새로운 일의 시작에 관한 2문항,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에 관한 6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에 관한 5문항, 성취에 관한 2문항, 확신에 관한 2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으며 Oh (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 이었다.

4)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파트너십

본 연구에서는 최미영(2012)이 개발한 34문항의 5점 도구로 구성된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호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민감성, 협력, 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심성의 7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자가 보고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6이었고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66-.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5이었고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61-.90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S 대학교병원에서 하였으며 자료 수집 전 해당 병원의 간호본부에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9일부터 2012년 4월 18일 이었으며 본 연구자가 자료수집자에게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간호사는 자료수집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지에 답변을 하였으며, 각자 용이한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수 봉투에 넣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각 병동 별로 근무 간호사 인원에 따라 10부~60부씩 총 200부가 배포 되어 이 중 169부가 회수 되었고(회수율: 84.5%), 그 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부를 제외한 총 16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아동간호사가 속해 있는 병원의 간호본부와 각 병동의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받았으며, 설문지는 연구자가 아닌 자료 수집자에 의해 회수되었다. 설문조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모든 설문자료는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 조사의 중단은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바로 연구 참여 동의서와 분리되어 설문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Scheffe 사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아동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165명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 나이는 28.88 ± 4.82 세 이었다. 미혼이 126명(76.4%)으로 기혼자 39명(23.6%) 보다 많았고, 자녀가 없는 아동간호사가 139명(84.2%)으로 자녀가 있는 아동간호사 26명(15.8%)보다 많았다. 전문대학졸업자가 26명(15.8%)이었으며 4년제 졸업자는 139명(84.2%)이었고, 4년제 졸업자 중 3명이 석사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종교가 있다고 한 아동간호사가 92명(55.8%), 종교가 없다고 한 아동간호사는 73명(44.2%)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답한 92명의 아동간호사 중 36명(21.8%)은 개신교, 33명(20.0%)은 천주교, 23명(13.9%)은 불교였다.

현재 근무지는 중환자실이 77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계병동이 40명(24.2%), 내과계/혈액종양 병동이 29명(23.6%), 소아정신과병동이 9명(5.5%)이었다. 어린이병원 내 일반병동 근무자의 합은 88명으로 전체 아동간호사의 53.3%를 차지했다. 총 임상경력으로 12개월 이하는 27명(16.4%), 13개월에서 24개월은 25명(15.1%), 25개월에서 60개월은 61명(37.0%), 61개월 이상은 52명(31.5%)이었다. 어린이병원 근무 경력으로 12개월 이하가 35명(21.2%), 13개월에서 24개월이 33명(20.0%), 15개월에서 60개월이 60명(36.4%), 61개월 이상이 37명(22.4%) 이었다. 연구 대상자인 아동간호사의 총 임상경력은 평균 57.69 ± 59.17 개월이며, 어린이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44.64 ± 42.86 개월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diatric Nurses (n=165)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Age(years)	<31	117	70.9	28.88±4.82
	31-40	43	26.1	
	>41	5	3.0	
Gender	Female	165	100	
Marital status	Married	39	23.6	
	Single	126	76.4	
Presence of children	Yes	26	15.8	
	No	139	84.2	
Education level	Diploma	26	15.8	
	Above Bachelor	139	84.2	
Religion	Yes	92	55.8	
	No	73	44.2	
Work place in children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77	46.7	
	Surgical Unit	40	24.2	
	Medical/Hematology	39	23.6	
	Psychiatry	9	5.5	
Length of nursing (month)	<13	27	16.4	57.69±59.17
	13-24	25	15.1	
	25-60	61	37.0	
	>60	52	31.5	
Length of nursing in pediatrics (month)	<13	35	21.2	44.64±42.86
	13-24	33	20.0	
	25-60	60	36.4	
	>60	37	22.4	

2.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는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 점수의 범위는 29점에서 145점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 평균은 100.90 ± 11.90 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최저점은 66점이고, 최고점은 131점 이었다.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항목의 평균 점수는 3.48점 이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 3.60점, 사회적 인식 3.19점, 간호의 전문성 3.79점, 간호실무의 속성 3.63점, 간호의 독자성 3.22점 이었다.

자기효능감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85점으로, 본 연구에서 165명의 자기효능감 점수 평균은 61.84 ± 6.96 점 이었고, 최저점은 38점, 최고점은 81점 이었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항목의 평균 점수는 3.64점 이었다.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파트너십 점수의 범위는 34점에서 170점으로, 본 연구에서 파트너십 점수 평균은 131.51 ± 13.65 점 이었으며, 최저점은 97점, 최고점은 170점 이었다.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파트너십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항목의 평균점수는 3.87점 이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상호성 3.87점, 전문적 지식과 기술 3.89점, 민감성 3.97점, 협력 3.76점, 의사소통 3.70점, 정보공유 3.93점, 조심성 3.92점 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n=165)

Variables	Mean±SD	Min	Max	Mean of Items
Nursing Professionalism	100.90±11.90	66	131	3.48
Self-efficacy	61.84±6.96	38	81	3.64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131.51±13.65	97	170	3.87

3.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

아동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그리고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측정되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359$, $p<.001$)를 보였고, 간호전문직관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487$, $p<.001$)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적상관관계($r=.442$, $p<.001$)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n=165)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r(p)	r(p)
Self-efficacy	.359(<.001)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487(<.001)	.442(<.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파트너십 비교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차이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는 결혼여부($t=1.996$, $p=.048$), 자녀유무($t=2.141$, $p=.033$), 종교유무($t=2.715$,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인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104.20 ± 11.00 점으로 미혼자의 점수 99.89 ± 12.0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가 있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 평균점수는 105.46 ± 12.03 점으로, 자녀가 없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 평균점수 100.06 ± 11.73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가 103.11 ± 11.85 으로 종교가 없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 98.14 ± 11.46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에서 나이, 교육정도, 근무병동, 총 임상경력, 아동병동의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나이($F=3.848$, $p=.023$), 결혼여부($t=3.052$, $p=.003$), 자녀유무($t=2.855$,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41세 이상의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40세 미만의 아동간호사에 비해 높았고, 기혼자, 자녀가 있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에서는 종교유무($t=2.275$, $p=.024$), 근무병동($t=-2.015$, $p=.04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아동간호사가 종교가 없는 아동간호사에 비해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가 높았고,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아동간

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에 비해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Mean±SD	F/t (p)	Mean±SD	F/t (p) scheffe	Mean±SD	F/t (p)
Marital status	Married	104.20±11.00	1.996	64.74±5.56	3.052	134.38±10.67	1.508
	Single	99.89±12.03	(.048)	60.94±7.13	(.003)	130.63±14.37	(.133)
Presence of children	Yes	105.46±12.03	2.141	65.35±5.80	2.855	134.77±9.71	1.328
	No	100.06±11.73	(.033)	61.19±6.99	(.005)	130.91±14.21	(.186)
Education level	Diploma	97.19±11.80	-1.745	60.53±6.36	-1.040	130.67±16.87	-.334
	Bachelor	101.60±11.83	(.083)	62.09±7.07	(.300)	131.67±13.03	(.739)
Religion	Yes	103.11±11.85	2.715	62.16±6.25	.665	133.64±13.48	2.275
	No	98.14±11.46	(.007)	61.43±7.79	(.508)	128.83±12.48	(.024)
Work place	ICU	100.51±11.86	-.405	60.88±6.33	-1.664	129.24±13.47	-2.015
	Ward	101.26±12.00	(.686)	62.68±7.40	(.098)	133.50±13.57	(.045)

마지막으로 아동간호사의 나이, 총임상경력, 어린이병원 임상경력과 간호 전문직관, 자기효능감,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이 분석되었다. 아동간호사의 나이는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 ($r=.245$, $p=.002$)를 보였으며, 총 임상경력도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r=.262$, $p=.001$)를 나타냈었다. 어린이병원 임상경력 또한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r=.217$, $p=.005$)를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and Age, Length of Nursing practice, Length of Nursing practice in Pediatrics (n=165)

Variables	Age	Length of Nursing practice	Length of Nursing practice in pediatrics
	r(p)	r(p)	r(p)
Nursing Professionalism	.099(.204)	.129(.099)	.087(.269)
Self-efficacy	.245(.002)	.262(.001)	.217(.005)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106(.176)	.126(.108)	.121(.122)

V. 논의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점수는 3.48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여 서울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김명희(2008) 연구에서의 3.30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관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임향숙 등(1999)의 연구에서의 3.36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문영숙 등(2011)의 연구에서의 3.25점 보다는 다소 높았고,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임대순(2005) 연구에서의 3.47점과 비슷하였으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에 관한 고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의 3.67점, 간호사의 DNR 관련 윤리적 태도와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정수현(2007)의 연구에서의 3.69점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선행연구들에서와 비슷한 보통 이상 수준의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이 모두 성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또는 성인과 아동을 함께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조사연구에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결과가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에서는 결혼여부($t=1.996$, $p=.048$), 자녀유무($t=2.141$, $p=.033$), 종교유무($t=2.715$,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에서 나이, 교육정도, 근무병동, 총 임상경력, 아동병동의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고순희 등, 2004; 김미란, 2008; 김원경 등, 2008; 임향숙 등, 1999), 경력이 많을수록(김미란, 2008; 고순희 등, 2004; 김원경 등, 2008), 기혼일수록(고순희 등, 2004; 김원경 등, 2008; 임향숙 등, 1999)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결혼여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았으나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대가 만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 70.9%로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41세 이상의 대상자는 5명으로 3.0%에 지나지 않아 나이와 총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cDermott 등(1996)에 의하면 직업은 직업 외적 요소, 즉 나이와 경력 등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업무에 스스로 기술과 지식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정과 보상을 받을 기회가 많다고 인식함으로써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미, 2011).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유무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처음 조사한 항목으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자녀유무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동간호사의 상황적 특성이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성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석는 자녀유무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간호사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전문직관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 3.60점, ‘사회적 인식’ 3.19점, ‘간호의 전문성’ 3.79점, ‘간호실무의 속성’ 3.63점, ‘간호의 독자성’ 3.22점으로 ‘사회

적 인식'과 '간호의 독자성'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간호사들은 '사회적 인식'영역의 내용인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에 점수를 다소 낮게 주었으며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뜻이다.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이시라(201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인식' 영역의 점수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또 '간호의 독자성' 영역 중 간호가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항이 응답자 평균 2.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획득하려면 보건의료체계 내의 타 전문직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Wynd, 2003). 따라서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관련 협회, 전문가 집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상에 대한 문제,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한 중재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hodes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세미나 방법을 이용한 간호에서의 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이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로는 간호전문가로서의 행동, 용모에서부터 전문직의 특성인 사회공헌, 지속적인 역량개발, 연구, 자율성, 전문가 집단에의 참여는 물론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십 교육도 일반 간호사의 전문직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Abraham, 2011), 전문직관에 대한 자가체크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사정하고 실무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Primm, 2010).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은 주로 임상 현장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수기술이나 최신 의학, 간호학 지식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리더십 교육은 주로 보직을 받은 관리자급 간호사나 책임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간호사 대상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 콘텐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64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3.40~3.55점(고유경 등, 2006; 김인순 등, 2009; 문영숙 등, 2011)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석소현 등(2006)의 연구에서의 3.43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나이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45$, $p=.002$)가 있었고 총 임상경력 ($r=.262$, $p=.001$), 어린이병원 임상경력($r=.217$, $p=.005$) 또한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간호사로서의 경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경 등(2006)에 의하면 재직 중인 병원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가 3차 종합 전문요양기관인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연구의 결과를 전체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규모와 환경의 병원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가 본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아동간호사의 특수한 근무환경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이(Taylor & Reyes, 2012) 특별한 환경과 상황에서 근무해야 하는 아동간호사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추후 조사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나이가 41세 이상의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40세 미만의 아동간호사에 비해 높았고($F=3.848$, $p=.023$), 기혼자, 자녀가 있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이와 결혼여부, 자녀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여(고유경 등, 2006) 아동을 간호 대상자로 하는 아동간호사의 근무 상황적 특성에 따라 나타난 특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점수는 3.87점으로 증상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다.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에서는 종교가 있는 아동간호사가 종교가 없는 아동간호사에 비해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가 높았고($t=2.275, p=.024$),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아동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에 비해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015, p=.045$). 부모가 상주할 수 없으며 면회제한이 있는 중환자실에 비해 일반병동의 간호사는 환아 곁에 거의 상주하고 있는 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월등히 많아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높으며 병동 업무의 특성상 간호사와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환아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와 그 가족이 간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호사가 감독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아동간호실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Lee, 1999).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최미영(2012)의 도구가 개발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 측정된 개념이나 부모와 가족구성원이 입원한 환아를 간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간호실무에서의 환경적 특성상 큰 의의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관련된 다양한 각도의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359, p<.001$)를 보여 선행연구(문영숙 등, 2011)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비례한다는 Fetzer (2003)의 연구와도 같은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487, p<.001$)를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적상관관계($r=.442, p<.001$)를 보였다. 이는 곧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아동간호사에게 기대되는 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Hook (2006)은 파트너십의 전제조건에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역량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또한 파트너십은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역량, 확신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Gallant et al., 2002).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간호사의 간호실무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인 부모와의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총임상경력이 길수록, 아동간호사로서의 경력이 길수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과 자질, 지식 등을 두루 갖춘 훌륭한 간호사가 오랜 기간 동안 아동간호실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급여수준과 교대근무 여부도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고유경 등, 2006). 교대근무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김윤규 등, 2002)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는 등(남민 등, 1997)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자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를 안할 수는 없는 만큼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운용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하며, 또한 필요 시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지지체계의 확립도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지지적 상담 외에 선배, 동료 간호사의 멘토링(mentoring)이 초보 간호사의 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자기확신(self-confidence)을 높일 수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Ronsten 등, 2005). 실제로

간호사를 위한 직원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간호사가 오랜 기간 실무에서 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직무만족이 있으며 전문직관이 직무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Celik & Hisar, 2012; Hwang 등, 2009).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훌륭한 경력 간호사를 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실무현상영역의 연구로 아동간호실무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조사한 것과 이들과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아동간호실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아동간호사 실무환경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실무영역의 중요 인자인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여 아동간호사의 실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1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해당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9일부터 2012년 4월 18일까지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9.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와 one-way ANOVA, Scheffe 사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5점 척도 기준으로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48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64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평균 3.87점 이었다.
- 2)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359$, $p<.001$)를 보였고, 간호전문직관과 환자부모와의 파트너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상관관계($r=.487$, $p<.001$)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환자부모와의 파트너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적상관관계($r=.442$, $p<.001$)를 보여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호사-부

모 파트너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은 기혼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나이가 많고,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았고 나이, 총임상경력, 아동간호사로서의 경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은 종교가 있는 경우,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경우 점수가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이 높다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각각 영향을 주는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도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간호실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조사한 것, 이들과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간호사의 실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아동간호 실무현상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과 관련된 요인인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외에 아동간호사-부모 파트너십에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규명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2)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아동간

호사-부모 파트너십 외에 아동간호실무현상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3) 아동간호실무현상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실무 개선을 위한 중재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숙, 조결자, 최남희와 김원옥 (2002). 내러티브를 통한 임상간호사의 간호정체성. *대한간호학회지*, 32(4), 470-481.
- 고순희와 정복례 (2004).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 *간호행정학회지*, 10(3), 335-344.
- 고유경, 강경화 (2006). 일반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2(2), 276-286.
- 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 김명희 (2008).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영 (1999).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란 (2008).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업무수행과 재직의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 (2004). *일지역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 옥 (2001). *아동 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 지각정도와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규, 윤동영, 김정일, 채창호, 홍영습, 양창국, 김정만, 정갑열, 김준연 (2002).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반건강, 수면, 스트레스,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대한산업의학회지*, 14(3), 247-256.
- 김원경, 정경희 (2008). 중소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4(3), 287-296.
- 김은영 (1998). *이미지 메이킹*. 서울: 김영사.

- 김인순 (2009).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간호행정학회지*, 15(4), 515-526.
- 김정미 (2011). *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자 (2000).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민, 조숙행, 정인과, 서광윤, 정치경 (1997). 교대근무자의 우울과 불안 및 면역기능. *대한산업의학회지*, 9(3), 478-486.
- 문영숙, 한수정 (2011).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72-79.
- 박묘윤 (2001). *간호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길희 (1999). *관절염 환자의 운동행위 예측 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2011). 2010년도 간호부 연보.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 (2010). 2009년도 간호부 연보.
-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4), 475-481.
- 윤은자 (1995).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5(6), 1091-1100.
- 이시라 (2011).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준 (1990). 시장 개방시대의 기업이미지 제고전략. *서강 하버드 비즈니스*. 35, 77-84.
- 임귀숙 (1999). *병원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대순 (2005).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향숙, 오경옥 (1999).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충남대 간호학술지*, 2(1), 27-36.
- 전산초 (1986). *직무직관*. 서울: 대한간호협회.
- 전산초, 김수지와 변창자 (1989). *간호철학과 윤리*. 서울: 수문사.
- 정수현 (2007). *간호사의 DNR 관련 윤리적 태도와 간호 전문직관*.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숙 (2005).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창지사.
- 추현심 (2001). *임상간호사의 전문 직업성의 영향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 (2012). *아동간호사와 환자 부모의 파트너십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미영, 방경숙 (2010). 아동간호의 질에 대한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0(6), 757-764.
- 최송희(1997). *임상 간호사의 간호전문직 태도와 간호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자, 김현아, 김숙영, 김정수 (2002). 국내 아동간호학 분야의 연구개념 고찰 - 최근 10년 간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아동간호학회지*, 8(4), 449-457.
- 함연숙 (2011).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금선, 김정화, 이광미, 박지선 (2004). 임상 간호사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4), 430-437.
- Abraham, P. J. (2011). Developing Nurse Leaders - A Program Enhancing Staff Nurse Leadership Skill and Professionalism.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35(4), 306-3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allery, P. (1997). Caring for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A hidden area of nursing 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5), 992-998.
- Celik, S. & Hisar, F. (2012). The influence of the professionalism behaviour of nurses working in health institution on job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8, 180-187.
- Courtney, R., Ballard, E., Fauver, S., Gariota, M., & Holland, L. (1996). The partnership model: working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ward a new vision of health. *Public Health Nursing*, 13(3), 177-186.
- Clements, P. T., & Bradley, J. (2005). When a young patient dies. *RN*, 68(4), 40-43.
- Espezel, H. J., & Canam, C. J. (2003). Parent-nurse interaction: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4(1), 34-41.
- Fetzer, S. J. (2003). Professionalism of Associate Degree Nurses: the role of Self-Actualization.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4(3), 139-143.
- Gallant, M. H., Beaulieu, M. C. & Carnevale, F. A. (2002). Partnership: an analysis of the concept within the nurse-client relationship.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2), 149-157.
- Greenglass, E. R., Burke, R. J., & Moore, K. A. (2003). Reaction to increased workload: effects on professional efficacy of

- nurs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2(4), 580-597.
- Holahan, C. J., & Moos, R. F.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Hook, M. L. (2006). Partnering with patients. a concept ready for ac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6(2), 133-143.
- Hwang, J. I., Lou, F., Han, S. S., Cao, F., Kim, W. O., & Li, P. (2009).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3), 313-318.
- Kalish, P. A., & Kalisch, B. J. (1983).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3(1), 48-55.
- Kim, H. S. (2002). Approaches to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Nursing Query*, 11(1), 55-68.
- Lloyd, M., Urquhart, G., Heard, A., & Kroese, B. (2008). When a child says 'no':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with children having invasive procedures. *Paediatric Nursing*, 20(4), 29-34.
- Lee, P. (1999). Partnership: what does it mean today?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3(4), 28-32.
- Lee, P. (2007). What does partnership in care mean for children's nurs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6(3), 518-526.
- Maijala, H., Luukkaala, T., & Astedt-Kurki, P. (2009). Measuring parents' perceptions of care: psychometric development of a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Family nursing*, 15(3), 343-359.
- McDermott K, Laschinger, & Shamian J. (1996). Work empowerment

-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management*, 27, 11-47.
- Mendez, D., & Louis M. (1991). College Student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 Oh, H. S. (1993).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Primm, R. D. (2010). Professionalism Among Occupational Health Nurses. *American Associate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Journal*, 58(7), 281-283.
- Rhodes, M. K., Schutt, M. S., Langham, G. W., & Bilotta, D. E. (2012). The Journey to Nursing Professionalism: A Learner-Centered Approach.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3(1), 27-29.
- Ronsten, B., Andersson, E., & Gustafsson, B. (2005). Confirming mentorship.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3, 312-321.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 Strasen, L. L. (1992).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Strategies for Action*. PA: J.B. Lippincott Company.
- Strickland, O. L. (2005). Special Considerations When Conducting Measurements With Children,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3(1), 3-5.
- Taylor, H. & Reyes, H. (2012).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9(1), 1-13.

Wade, S. (1995). Partnership in care: a critical review. *Nursing standard*, 9(48), 29-32.

Wynd, C. A. (2003). Current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ism in nurs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5), 251-261.

부록 2.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

1.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	_____세
2	성별	① 여성_____ ② 남성_____
3	결혼여부	① 기혼_____ ② 미혼_____ ③ 기타_____
4	자녀유무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5	종교	① 개신교_____ ② 천주교_____ ③ 불교_____ ④ 없음_____
6	최종학력	① 전문대졸_____ ② 대졸_____ ③ 석사이상_____
7	총 임상경력	_____년 _____개월
8	현 근무지경력	_____년 _____개월
9	아동간호사 근무경력	_____년 _____개월
10	근무병동	_____ 병동

부록 3.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

2. 아동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 여러분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빠짐없이 “V” 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2.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시간 등을 아낌없이 바친다.					
3. 간호사는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 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간호사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6.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7.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된 인격자로 보인다.					
8.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9.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10. 간호사는 대부분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1. 간호사는 복장과 외모를 볼 때 전문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12. 간호사는 타 직종과의 관계에서 전문인다운 업무처리의 능숙성과 인격적 성숙성을 보인다.					
13.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고유한 서비스이다.					

14. 간호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므로 전문직업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15.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타 직종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16. 간호사는 병원내의 타 직종의 전문인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17.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인다운 자질을 보여준다.					
18.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19.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20.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1. 간호는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한다.					
22.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23. 간호는 고귀한 전문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24. 간호는 조직 내에서 각 직종 간에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25.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다.					
26. 간호직은 사회적 인식이 좋은 전문직업이다.					
27. 간호직은 전문직업적 과위를 발휘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8. 간호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29. 간호직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통해 만족스러운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는 전문직업이다.					

부록 4.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3.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확실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3.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4.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5.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 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고 생각조차 않는다.					
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매달린다.					
9.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10.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11.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14.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1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부록 5.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측정 도구

4.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 다음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대해 아동간호사와 부모가 상호 목표를 세우고 같이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동반자(파트너)로서 아동간호사와 부모의 협력적 관계(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최근 3-4일간 간호를 담당한 환아 부모와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 다음의 각 항목마다 생각과 일치되는 칸에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부모는 서로 존중한다.					
2. 나와 부모는 서로 배려한다.					
3. 나와 부모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4. 나와 부모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5. 나와 부모는 서로 감정을 이해한다.					
6. 나와 부모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					
7. 나와 부모는 서로 말을 조심한다.					
8. 나와 부모는 서로 행동을 조심한다.					
9. 나와 부모는 동등한 관계이다.					
10. 나와 부모는 아이의 간호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와 부모는 서로에게 협조적이다.					
12. 나와 부모는 서로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준다.					
13. 나와 부모는 서로 친밀감을 느낀다.					
14. 나와 부모는 아이 간호에 대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상의한다.					
15. 나는 부모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해준다.					

16.	나는 아이를 진심을 다해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부모에게 아이의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약물 이상반응, 알레르기 등)				
18.	나는 아이의 상태변화에 민감하다.				
19.	부모는 아이의 상태변화가 있을 때 나에게 알린다.				
20.	부모는 나에게 아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약 먹는 방법, 식이 습관 등)				
21.	나는 아이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아이를 가장 우선시한다.				
22.	부모는 입원생활 중 좋지 않은 점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23.	나는 아이의 상태 및 정보에 대해 다른 팀 구성원들(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4.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그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25.	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준다.				
26.	나는 때때로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27.	부모는 내가 아이를 담당하면 안심을 하는 것 같다.				
28.	나는 부모가 미처 아이에게 해 주지 못한 일을 잘 챙겨서 해 준다.				
29.	내가 아이를 간호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준다.				
30.	나는 아이의 불편한 곳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31.	나는 아이를 간호할 때 세심하게 행동한다.				
32.	나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33.	나는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를 격려한다.				
34.	나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Cho, Eun-J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ang, Kyung-Sook, PhD., RN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practice environment of pediatric nurses' by identifying one's'-recogni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and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for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ir practice atmosphere to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65 nurses working at a specific university branch children's hospital in Seoul, with 6 months of working experiences or more, who agreed to participate and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from April 9, 2012 to April 18, 2012.

The research tools to quantitatively measur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PASW statistics 19.0 as real

numbers and percentages, us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d one-way ANOVA, and Scheffe based on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a five-point scale, showed nursing professionalism to have an average score of 3.48 points, self-efficacy with an average score of 3.64 points, and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with an average score of 3.87 point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statisticall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r=.359$, $p<.001$), whil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r=.487$, $p<.001$). Lastly, self-efficacy and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r=.442$, $p<.001$) showing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al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ones who were married, and had religion and children tended to have higher nursing professionalism. Higher self-efficacy was exhibited by the ones who were older, married and raising children; meanwhile,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e, length of nursing practice, and length of nursing practice in pediatrics; the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tended to have higher scores for people who had religion and worked in a general ward.

Based on the results above, high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will result in higher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moreover, factors that influe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nurse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were identified as well.

Keywords : pediatric nurs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partnership

Student Number : 2004-20665